

2025년 1월 23일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회사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장

위원 : 위원장, 김대중, 박병희, 김석, 박병현, 조애숙, 천지연, 안인수, 박소정, 박정숙, 김종은, 박종일

경영심의센터장

새로 위촉되신 신임위원님 두 분의 한 말씀 듣고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일

시청자위원회 참석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달 참석하면서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고 시청자위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은

매스미디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음. 여수MBC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시청자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적극 참여하여 기여하겠습니다.

위원장

훌륭한 회의장소 마련해주신 순천대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위촉되신 위원 두 분도 환영. 두 달 동안 충격적인 일이 있었으며 혼란의 과정에서 비극과 안좋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한 건강의 언론의 토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등 극단적으로 치달는 유사언론이 걱정되고 있음. 지역에서는 여수MBC의 공정방송 역할을 기대.

대표이사

많은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콘텐츠센터장

내란과 탄핵 정국 속에서 뉴스 편성 위주 긴급 특보 편성, 전국적인 이슈 대응했으며 1월은 편성 정상화. 섬 특집 1, 2부 네트워크 특선 전국방송실시, 설 연휴에 로컬 특집편성으로 양 코르로 특집방송 진행할 예정. 2월 프로그램 기획 및 공모 꾸준히 진행할 예정, 2월 3일부터 라디오 박성언의 음악식당 편성 시간 12시~2시에서 4시~6시로 변경.

직전회기 시청자의견 반영 관련하여 여수 산단 위기, 섬박람회 개최 진행상황, COP33 유치 관련 내용 <라디오 전망대> 취재하여 방송하였음.

보도센터장

12월, 1월 초까지 탄핵정국,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보도 지속, 지역민 반응, 현장 기자 파견하여 지역 3사 리포트 제작, 올 초 지역 정치권 이슈, 가든마켓 분쟁, 여수 오동도 상가 문제, 순천 문지마 살인 문제, 여수 제주간 뱃길 중단 문제, <뉴스앤이슈> 지자체장 새해 이슈 및 다짐, 석유화학 위기 대응 문제 특집 제작 예정

2월 탄핵 정국, 지역 관광 침체와 활성화 문제, 순천-목포 대학 통합 및 의대유치 이슈 취재, 인구감소 문제 대책, 지역 대형soc사업 계속 관심을 두고 취재하겠음. <뉴스앤이슈> 글로벌 대학 관련 진행예정.

사업센터장

영화관 운영 관련 한국 영화계 침체, 설연휴 블록버스터 작품이 없음. 뮤지컬 시카고 2월, 섬진강 마라톤 4월 개최 준비, 여수아카데미 10회 개최 3월부터 추진, 강사 초빙 준비, 4월 연극 바닷마을다이어리(일본영화 바탕),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입찰 참여 예정, 정채봉문화잔치 계획 수립 준비

김석

기존 레거시미디어 보다 극단화된 유튜브, 유사언론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어서 안타까움. 20~30대 남성 청년을 위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이 있었음 좋겠음. 또 하나 몇 년 전 여수MBC에서 지방선거 당시 기획한 <시민이 말한다>, 시민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의견과 내용을 수렴했던 원탁토론 좋은 기억, 계엄과 계엄 이후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념이 나온다면 사회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요청, 경제인, 의료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조애숙

제주항공사고 로컬라이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 여수공항도 존재. 여수공항 활주로 2026년 섬박람회, cop유치 등 국제행사를 지역에서 앞두고 있는 상황. 활주로 연장의 여론형성에 여수MBC의 역할 필요. 섬박람회 윤곽이 나오고있음. 섬박람회 진행 관련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진행과정 자세히 보도해주시길 바람.

박종일

유사언론, 극단적인 성향의 유튜브 콘텐츠 소비 큰 문제. 공익을 담아내고 공정과 정의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

박병희

순천대 대학경쟁력 관련해서 보도해준 내용 감사하게 생각. 레거시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고민 필요. 유사언론과는 다른 역할 중요

천지연

의견반영관련 보도특집 지방소멸, 학생수의 감소를 무조건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 교육의 미래 관련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에 대한 대안 필요. 전남에서 '2030교실' 1대1 맞춤교육, 특성화 준비중에 있으며 과감한 투자를 통해 대학 2030교실 같은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역 교육관련된 지역적인 이슈가 전국, 수도권에서도 볼 수 있는 있었음 좋겠음. 교육에 대한 반응, 성장도, 만족도가 높음. 특집으로 끝나지 않고 시리즈로 만들어서 전국적인 방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기대. 이를 통

해 전남으로의 학생 유치 및 가족 유치, 직장인 교육 프로그램 지역을 벗어나서 외부로 알릴 수 있는 방법 고민 필요.

안인수

여수산단의 위기, 지역상권의 침체에 대하여 꾸준한 보도로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나 대책이 부족. 위기지역으로 지정준비. 지원내용은 지역소상공인, 지역경제에는 도움될 것으로 보이나 시국으로 인해 시행의 어려움이 보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보도할 필요가 있음.

혼란스러운 상황과 극단적인 대립과 극단적인 미디어, 유사언론의 정확하지 않는 정보제공의 문제, 어느 채널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음. 국민들을 위로하는 콘텐츠 제작, 공정방송의 역할 필요

박소정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각.

쉽 도를 넘는 사람들 전국방송, 따뜻한 위로가 되는 것이 참 좋았음. 전국화 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음.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함께 공유한 프로그램이 없어 아쉬웠음.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인터뷰 관련해서 그 내용에 맞는 대상을 찾아서 인터뷰 하길 바람. 일반 시민들이 하더라도 위기감, 긴장감이 없이 인터뷰하는 것이 인터뷰의 내용과 시국에 맞지 않으며 주제에 맞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인터뷰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 계엄령 1호가 여순사건. 우리 지역의 문제를 12.3계엄과 관련지어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음. 새해에는 따뜻한, 희망찬, 용기를 낼 수 있는 뉴스나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계엄 실패는 콘텐츠, 교육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 방송과 영화가 미디어, 콘텐츠로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방송 제작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목적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야함

박경숙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중요. 지속가능한 농촌만들기 관련해서 농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이 필요

박병현

의료대란, 전공의파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 잊혀질때쯤 다시 한 번. 차별화 된 보도 필요(지역 국회의원 탄핵 투표 미참여 문제와 관련된 내용 후속 보도 필요)

제주공항 참사관련 여수공항 문제 활주로 길이, 활주로 폭, 공항 주변 철새도래지와 버드스트라이크 문제와 조류퇴치인원 유지관련, 둔덕 로컬라이저문제 다뤄주길 바람.

김대중

모든 언론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이슈에 매몰돼있는 상황 우려됨. 의견의 편향성, 양극화 사회적 논의가 될 시점은 됐음. 결국 돈이 문제라고 생각(조희수 올리기) 민주주의 병폐의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 여수산단 위기. 지방세 감소 문제. 산단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함. 인구문제, 세금, 먹고사는 문제, 돈의 문제, 일자리 기반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것은 지역의 위기. 산단이 붕괴되었을 때 지역, 대학이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한 고민할 시간 필요.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하여 주시해주시길 필요.

김종은

여수MBC 뉴스레터 회사차원에서 참여 독려했으나, 종료돼 아쉬움. 특집프로그램. 방송 관련 편성 시간의 아쉬움. 섬과 관련된 맛집. 섬의 맛 관련된 클립, 쇼츠 추가로 제작 필요. 캠페인 관련(만원사랑 캠페인) 리모델링도 필요. 위기 선제대응지정 관련 지역 산단의 어려움에도 관심이 필요.